

광주 수출입기업 10곳중 7곳 “FTA 도움”

48% “가격경쟁력 높아져” 29% “수입원가 절감”

FTA 활용률 61%...작년보다 되레 3.6% 떨어져

■광주상의 132곳 조사

친환경 소재의 가방과 알치마 등을 만드는 광주의 ‘루바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최고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한류 붐을 탄 국내 패션·뷰티 상품이 중국인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한·중 FTA로 패션상품 규제가 철폐되고 관세도 인하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국 흡소핑에도 진출한 루바니는 FTA의 발효만 기다리고 있다. 박주현 대표는 “발효 되면 가격경쟁력이 30% 이상 확대되고, 매출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10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확인한다”고 기대

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교류 확대 기대감 및 실질적인 수출입 물량 증대 덕분에 광주지역 수출입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놓은 ‘FTA 활용현황 및 한·중 FTA 등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근 지역 수출입 기업 1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6%인 92곳이 올해 수출입에서 FTA가 많은 도움이 됐거나 다소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관세인하(철폐)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47.9%)했기 때문이

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관세인하(철폐)로 원부자재의 수입원가 절감(29.2%), 수주 확대에 도움(22.9%) 순으로 답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환율불안 등 대외 비즈니스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컸지만 FTA가 지역 수출기업들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30.4%였다. 이들 업체는 관세인하 혜택이 적다(31.6%)거나 원화 환율 하락(31.6%), FTA 발효 상대국의 경기침체(5.3%)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지역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61.4%로 지난해(65.0%)가 웃돌았지만, 기계와 전자부품은 지난해보다 활용률이 낮아졌다.

이 밖에 올해 7월 자동차 등의 양허관세

가 추가인하된 한·EU 활용률과 한·아세안의 활용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다만, 발효 3년차인 한·미 FTA의 활용률은 하락했다. 지난해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의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6%)이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별다른 영향 없다’는 32.8%, 부정적이라는 11.2%였다.

지난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와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한·캐나다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40%)보다 ‘별다른 영향 없음’이라고 밝힌 업체(60%)가 더 많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본부세관, 수출지원 관계 기관과 함께 해당 국가의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지원, FTA 원산지 관리역량 제고,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룡기자 exian@

내년 아파트 27만여가구 분양

민간건설사 분양계획...광주 669, 전남 4120가구

내년 전국적으로 27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돼 신규 분양 시장이 올해 못지않은 대풍년을 이룰 전망이다. 내년은 특히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인기지역의 청약 경쟁은 올해보다 더 치열해지는 등 청약 시장이 후끈하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서비스에 따르면 150여 개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날 기준 전국적으로 총 27만6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실제 분양된 32만여 가구(잠정)에 비해 4만4000가구 적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분양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가 적지 않고, 현재 계획보다 분양물량을 늘리겠다는 건설사가 많아 내년도 실제 분양물량은 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잠정 분양계획을 보면 내년 전국 27만

6000여 가구 가운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5%인 18만342가구, 지방이 35%인 9만5709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광주는 669가구, 전남은 4120가구가 예정됐다.

부동산서비스 관계자는 “2011년 이후 4년간 수도권보다 지방의 분양 물량이 많았으나 내년에는 이 기조가 역전된다”며 “광주나 대구, 부산의 혁신도시 등에서 지난 3~4년세 분양이 급증해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자 건설사들이 지방 사업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었던 수도권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무주택자 사이에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해진데다 내년에는 1순위 청약지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청약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온라인 쇼핑몰로 100억, 직거래 장터로 46억

전남도 올 농특산물 146억원 매출

전남도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올 한 해 개최한 수도권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4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올해 전남도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비롯해 우정청,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대해 농특산물을 입점시켜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전남도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올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량리역 광장, 목동아파트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100여 차례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최대 소비자 시장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광주·전남에서도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목포 평화광장, 순천 조례호수공원에

서 매주 토요일 20개 시·군이 참여해 제철에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해 모두 4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12일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케팅 축제인 제6회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페어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64개소에 매달 친환경 쌀(20kg) 300포대를 공급하게 됐다.

김태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직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 마진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내년에도 수도권에서 전남 농특산물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산타·루돌프...크리스마스 케이크 눈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1일 백화점 베이커리 매장에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선보였다. 산타, 루돌프, 스노우맨, 마카롱트리 등 다양한 모양의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산업진흥회 내년초 카타르 LED 조명 합작공장 착공

로또복권 (제629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당첨금(원)	당첨자수
19 28 31 38 43 44		1
등 위		
1 6개 숫자일치	2,919,433,575	5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71,554,745	34
3 5개 숫자일치	1,841,682	1,321
4 4개 숫자일치	50,000	68,554
5 3개 숫자일치	5,000	1,183,752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1일 내년 상반기 중 카타르에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합작공장이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은 고온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LED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한국광기술원 지원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걸맞은 LED 조명 제품을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LED조명은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한·카타르 LED 프로젝트는 광산업진흥회 9개 회원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하세요”

내년 2월 17일까지 전국 사무소에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약 60일간 광주사무소 등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 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에서 운영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중 범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

사업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범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으면 별도로 사건화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가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BI사업화 지원기관 선정

사업비 年 3억원 지원받아

전남테크노파크(원장 홍중희)가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사업화 지원기관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아이템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기관’에 공공부문 기관으로 선정돼 연간 3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BI 사업화 지원기관은 신규 BI 발굴과 평가, 모델기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에 이르기까지 BI 사업화에 필요한 전과

정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목하고 관련산업 활성화와 창업유도, 매출증대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 추진방향을 펼친다.

홍중희 원장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BI 사업화 지원기관 선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좋은 아이템을 사업화로 연결해 지역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매"

탐정처럼 분석하고
목사처럼 협상하고
검사처럼 다뤄라!!

서둘지 마라!
좋은물건은 쏘아진다!

특수경매만이 부자되는 지름길이다!



경매투자

-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상담후 본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